

함글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례 12:15

417

2019.12.1

2019년 주님의교회 표어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신명기 6:5~7

오늘의 말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
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 손으로 보내셨도다

누가복음 1:51~53

오늘의 주요기사

- 2면 성서칼럼 돌부리
- 3~6면 사역 소식
- 7면 목회칼럼
- 8면 아가나들이, 알립니다

교회일정

- 12/1(주일) 대림절 시작
- 12/4(수) 교구연합수요기도회
- 12/8(주일) 대림절 2주 / 정기당회
- 12/15(주일) 대림절 3주
- 12/22(주일) 대림절 4주 / 성탄가족예배
- 12/25(수) 성탄예배 / 성탄찬양예배(칸타타)
- 12/31(화) 송구영신예배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유호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글함울팀
홈페이지 : www.pcltv.org

주님의교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2019년 생명사랑 이웃사랑 음악제

> 관련기사 3면

성서칼럼 돌부리

아우구스투스의 보석 (누가복음 2:1~7)

“아우구스투스의 보석”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 카메오는 언뜻 보면 화려한 심미적인 장식품이나 예술작품으로 보이지만, 사실 온갖 정치적, 신학적 상징으로 가득 찬 1세기 로마의 “제국 선전물(Imperial Propaganda)”이다. 이 카메오는 내용상 다소 대비를 이루는 상하부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상층부는 아우구스투스의 신성과 권능을 묘사한다. 중앙에는 투구를 쓰고 오른손에 창을 든 여신으로 표현된 로마와, 실질적으로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가 함께 왕좌에 앉아 전장에 널브러진 방패와 무기들을 발로 밟고 있다. 여신 로마의 왼손은 칼집의 칼에 대어져 있는데, 언제라도 칼을 뽑아 응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 로마 여신의 시선이 가리키는 남자가 아우구스투스임을 표시하기 위해 그의 이마 앞쪽 원반에는 아우구스투스의 탄생 별자리인 염소자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 묘사된 아우구스투스는 단순히 “인간-통치자”가 아니다. 이미 전 세대에 지중해 세계를 넘어 동방원정으로 거대한 헬레니즘 제국을 형성했던 알렉산더대왕은 제우스로 표현되고 선전되었는데, 이 카메오는 이러한 통치자 신성화 전통을 이어받아 아우구스투스를 묘사하고 있다. 그의 발아래는 유피테르(제우스와 동일시되는 로마 만신전의 주신)의 주요 상징인 독수리가 자기 주인을 바라보고 있다. 즉, 아우구스투스는 신들의 왕 유피테르(제우스)이자, 그의 화신이라는 의미이다. 아우구스투스의 왼손에는 제우스의 번개 대신 긴 왕홀이 쥐어져 있는데, 이는 그가 지중해 온 땅의 지배자임을 나타낸다. 또 그가 오른손에 천 끝이 굽은 작은 막대기(lituus)는 그가 로마군단 최고통수권자임을 나타낸다.

아우구스투스의 지휘봉은 로마 여신 우축에 선 두 남자를 향해 있다. 가장 우축에서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Victoria)가 끄는 전차에서 내리는 토가 차림의 남자는 훗날 아우구스투스를 이어 황제가 되는 아우구스투스의 양자 티베리우스이다. 그리고 그 옆에 개선장군의 복장을 하고 선 남자는, 카를 갈린스키(Karl Galinsky)의 해석에 따르면, 율리우스-클라우디우스 황가의 일원이자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게르마니쿠스(칼리굴라 황제의 아버지,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형제)이다. 이러한 묘사 구도는 이 두 황족 장군이 아우구스투스의 전능한 군권 아래 성공적으로 원정을 실행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아우구스투스의 왼편, 즉, 등 뒤에는 세계 전체를 상징하는 세 신적 존재가 그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앉거나 서 있다. 가장 앞쪽에 “풍요의 뿔(cornucopia)”을 손에 쥐고 두 자녀를 데리고 앉은 여성은 로마 본토를 상징하는 이탈리아(Italia)다. 그녀의 두 자녀는 곡식을 산출하는 계절인 여름과 가을을 상징한다. 그 뒤에 선 턱수염 덩



아우구스투스의 보석(GEMMA AUGUSTEA). 빈 미술사박물관(Kunsthistorisches Museum, Vienna) 소장. 가로 9인치(23cm), 세로 7.5인치(19cm), 두께 0.5인치(1.3cm). 아라비아산 옉스스에 얇은 돌을새김을 한 기원후 10년경의 카메오

수룩한 남자는 대양(大洋)을 상징하는 오케아누스(Oceanus)이다. 그리고 그 뒤에 서서 아우구스투스 머리 위에 띄갈나무 잎으로 짠 면류관을 씌우고 있는 여성의 형상은 “세계”로 번역되기도 하는 오이쿠메네(oikoumenē)이다. 오이쿠메네는 본래 그리스어에서 사막이나 광야가 아닌 인간의 거주 지역을 뜻했는데, 헬레니즘 시대에는 야만인의 세계가 아닌 그리스 문명권을 뜻하는 말이 되었다. 그리고 이 카메오가 만들어지던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의 통치권이 미치는 세계, 곧 로마 제국령을 뜻하게 된다. 신약성서의 어법으로 표현하면, “로마/황제의 나라(basileia)”라고 할 수 있다. 이 오이쿠메네가 아우구스투스 머리 위에 씌우는 관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로마 시민을 지켜낸 구원자-장군에게 수여되는 관(corona civica)이었다. 결국, 지중해 연안 온 땅과 바다, 그리고 그 제국 통치령의 세계 전체가 제우스와 같은 신적 존재인 아우구스투스를 바라보며, 그에게 통치자, 구원자의 관을 선사하고 있는 장면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신적 관채로 가득 찬 상층부 아래는 인간의 땀과 피 흥건한 전장이다. 이 하층부 인물들의 해석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엇갈린다. 어떤 이들은 단순히 익명의 로마군(로마군인과 또 함께 참전한 연합군과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은 야만인 지도자들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실제의 역사적 인물들이나 신적 존재들을 각각 표현한다고 보기도 한다. 중요한 점은 이 장면 전체의 행동과 의미일 것이다. 전쟁에 승리한 로마군은 카메오 하층부 중앙에 전승기념비(tropaion)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전승기념비는 주로 승리의 전환점이 된 장소에 세워져 승리를 과시하는

데, 거대한 십자형 목재 꼭대기에는 적군의 갑옷과 무기가 걸린다. 포박된 채 쫓그리고 앉아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한 쌍의 야만인 남녀와 머리채 잡혀 끌려오는 또 다른 야만인 남녀는(어떤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외모와 복장으로 미루어 티베리우스와 게르마니쿠스에게 정복당한 게르만족이나 켈트족 지도자들이다) 곧 전승기념비 아래에서 처형당할 예정이다.

“아우구스투스의 보석”은 이러한 상층부의 신적 평화와 권능, 그리고 하층부의 피땀 어린 인간적 분투를 한 쌍으로 붙여 보여준다. 아우구스투스의 군사적 승리와 안전, 곧 로마의 평화(PAX ROMANA)가 지닌 신성과 실천을 묘사하기 위함이다. 이 아름다운 카메오가 표현하는 로마의 제국 선전(Imperial Propaganda)에는 로마의 제국-신학(Imperial Theology)이 깊이 배어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러한 제국 선전과 제국-신학의 한 복판에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긴다.

“그 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누가복음 2:1) 예수 탄생 소식을 여는 누가의 첫 문장은 단순한 시간, 단순한 배경이 아니다. 도스토옙스키 소설의 시공간을 분석하며 바흐친이 예리하게 지적했던 것처럼 이는 뒤에 깔린 부차적 배경이 아니라, 서사의 분위기를 좌우하도록 전면에 내세워진 전경이다. 누가는 아기 예수께서 “가이사 아우구스도,” 곧, “아우구스투스의 보석”이 그려내는 것과 같은 제국 선전과 제국-신학이 뒤덮은 세계 한가운데 태어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누가는 가이사 아우구스도(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천하로(pasan tēn oikoumenēn)” 호적하도록

영을 내렸다고 말한다. 이때 우리말 “천하”로 번역된 그리스어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오이쿠메네이다.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이 로마 제국 온 땅에 울려 퍼지는 장면이다.

이처럼 온 세상을 휘어잡는 황제의 권력을 누가는 “호적하라”라는 하나의 동사로 압축한다. 그리스어로 아포그라프(apographō)라는 동사인데, 문자적으로는 등록하다, 기록하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구조사(census)를 의미하는 정치적, 행정적 전문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피지배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지배권 주장인 인구조사는 피지배자의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고 세밀하게 점검함으로써, 확고한 군사적, 경제적 통제권을 구축하고자 할 때 시행된다.

구약성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를 유례없이 강력하게 비판하는데(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 참조), 이는 인구조사가 지닌 잔인한 수탈적 성격 때문이다. 다윗의 인구조사는 백성이 얼마나 되나 하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이는 다윗이 군대 동원과 세수 확보를 위해 이방의 왕국들과 같은 권력 구조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 시도했다는 의미이고, 왕을 세우지 말라던 하나님의 경고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본격적 왕정 시대가 도래했다는 징후이기도 했다.

로마 제국은 단순히 군사적 힘으로만 유지될 수 없었다. 모든 거대한 제국이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강대한 군사력도 전 제국을 지배하는 힘으로 역부족이다. 이 커다란 공백 메우는 힘이 바로 황제의 호적명령, 곧 인구조사이다. 인구조사를 기초로, 끝없는 정복 전쟁을 위해 로마는 식민지의 자영농들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다. 곧 자영농은 자기 땅을 일고 소작농이 되고, 본토의 귀족과 이들에게 연줄을 댄 식민지의 기생 권력자들(client)이 대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광장에서 하루 벌이를 기다리는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한다(마태복음 20:1~16 참조). 이 과정 가운데 사람과 사람은 군대보다 집요하고 철저 사슬보다 차가운 촘촘한 빛의 관계망으로 얽히게 되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경제적 신용망 건설의 기초가 바로 “호적하라”라는 황제의 영이었다.

누가복음이 그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은 온 오이쿠메네를 엮어매는 지배자의 권력 의지에 휩쓸리며 시작된다. 그 위태롭고 번잡한 세계 한복판에서, 번듯한 방 한 칸 준비하지 못한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 오늘 우리 세계(oikoumenē)를 하나의 카메오로 새겨내면 어떤 형상이 될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 카메오 위에서, 이 카메오 한복판에 오시는 아기 예수를 기다린다. 또다시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손경민 목사

사역소식 | 은사사역팀

2019년 사역박람회



금년도 사역박람회가 11월 17일, 25일 2주에 걸쳐 교회 1층 로비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총 30개 부서(팀)에 175명이 신청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163명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가장 많이 신청한 부서는 봉사분과위원회로서 총 23명이 신청하였고, 예배분과위원회 소속 중보기도팀이 19명, 청소년분과위원회가 19명, 어린이분과위원회가 1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부서의 교사인력 부족에 대한 담임목사의 지원 독려가 크게 작용하여 해당 부서의 교사 지원자가 많았다. 특히 중보기도팀은 전년도 대비 13명이 증가한 19명이 신청함으로써 금년도 사역박람회에서 가장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었다.

사역박람회 주관부서인 은사사역팀

이 홍보용 메인프레임을 설치하고, 신청부서가 해당 홍보물은 직접 제작, 게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고 현장에서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부서의 팀장 및 관계자가 신청자와 실시간으로 접촉하여 향후 진행사항을 피드백해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신청자와의 관계를 형성했다.

약간의 아쉬운 점은 부서별 홍보 부스가 로비에 설치됨으로써 협소하고 다소 산만한 점은 추후 개선할 사항이다. 내년에는 사역박람회 일정을 조정, 날씨를 감안하여 9월 또는 10월경 교회 앞 뜰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류혜경 집사 / 은사사역팀장

사역소식 | 정신학원

2019년 제2회 정신청소년포럼

선배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지난 11월 22일(금) 제2회 정신포럼이 열렸다. 정신청소년포럼은 올해 초부터 시작된 주님의교회와 정신학원의 연합사역이다. 정신청소년포럼의 목적은 개인적, 공적 삶을 통해 타인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크리스천 선배와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기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능동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율성을 기르도록 하는 데 있다.

강사로 초대된 이영표 위원(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은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주제로, 축구선수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실패와 성공, 그리고 삶의 의미와 행복 등에 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주었다. 청소년들을 비롯하여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고민하는 주제였기에 청중의 호응과 몰입도 컸다. "우리 가족 최고의 날이

있어요!"라는 고백을 들려줬던 한 가족, 환한 미소와 함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건네준 정신여고 학생 등을 보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소망, 위로를 전해주는 멋진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함께 한 어른 세대에게는 청소년들의 진지한 눈빛과 그들의 고민을 담은 깊은 질문들을 들으며, 주 안에서 우리 자녀로 품고 있는 다음 세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정신여중고 학생, 교사, 직원, 부모님과 주님의교회 성도들, 지역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임경순 목사

사역소식 | 섬김과 나눔, 남녀선교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2019년 생명 사랑 이웃 사랑 음악제 개최

주님의교회 (사)섬김과나눔과 남녀선교회는 지난 11월 20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주님의교회 대 예배실에서 지역사회의 소외된 불우이웃을 돕고 섬기기 위한 지역사회복지와 공익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이를 전파하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년 생명 사랑 이웃 사랑 음악제'를 개최했다.

금년에 4번째 개최된 음악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지역 주민과 (사)섬김과나눔이 수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들을 초대한 가운데 대학생들의 금

관오중주 연주에 이어 특별출연한 정신여중 예찬사와 정신여고 노래선교단의 아름다운 공연이 이어졌고 주님의교회 미시오데이 선교합창단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무리되었다.

함줄함울



사역소식 | 뷰티풀페어런팅센터

2기 아름다운 부모학교 수료

11월 23일에 2기 아름다운 부모학교 수료식이 있었다. 9월 21일부터 10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된 아름다운 부모학교 2기에서는 기독교 부모란 누구인가, 부모의 정신 건강, 크리스천 부모의 자녀 이해, 여호와 경외교육, 학업과 은사 이해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아름다운 부모가 되기 위한 출발선에 서게 되었다.

함줄함울



사역간증 | 유아영성나무

제3기 유아 영성나무

센싱 더스토리(Sensing The Story)

11월 27일(수)에 제 3기 유아 영성나무-센싱 더스토리를 수료하였다. 센싱 더스토리(Sensing The Story)'는 성경의 이야기를 어린이들이 모든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제3기 유아 영성나무의 주제는 '믿음의 사람-아브라함 이야기'였다. 어린이들은 매주 교구 놀이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했으며, 이야기 심화를 위해 포일샌드 아트, 말씀 스탠드 만들기, 북아트 등의 다감각적 이야기 심화 활동을 병행하였다.

8주 동안의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배웠다.

어릴 때 접한 성경의 이야기는 평생 동안 삶을 동행하며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어린이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을 빚어 가신다. 우리 아이들이 영성을 빛는 성경 말씀을 통해 믿음의 아이로 자라가기를 소망한다.

함줄함울



사역소식 | 뷰티풀페어런팅센터

전교인 가정세미나 치유와 성화를 위한 '기질 찾기'

11월 24일에는 진해 연세사랑병원 병원장이자 이끌림기질연구소 소장인 김록우 박사를 강사로 가정세미나가 진행되었다. "치유와 성화를 위한 기질찾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에서는 "기질 중심 심리발달론"과 "기질과 진짜 자기"라는 내용으로 기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유형들을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 자신의 기질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부부가 함께 강의를 들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고, 4시간의 교육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함줄함울

사역간증 | 뷰티풀페어런팅센터

해피 맘 스쿨을 마치고



따스했던 지난 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태중에 귀중한 생명 하나를 심어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가기에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던 중 교회의 광고와 지인의 추천을 통해서 임신부를 위한 '해피 맘 스쿨'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했지만 아기를 위해 용기를 내어 새로운 공동체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모임 첫날, 이은미 전도사님과 집사님들께서 부드러운 미소로 저희를 맞이 해주셨습니다. 함께 모여 큐티를 하며, 성경에 기록된 훌륭한 부모들의 모습을 함께 공부하고,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임신 중에 받아야 하는 두려운 검사와 결과들도 응원하고 위로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꽃다발 만들기, 정신건강 강의듣기, 태교 동화책 만들기, 애착인형 만들기, 임신부 요가 등으로 알차고 유익한 태교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활동 후에는 정성스런 식사와 간식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해피맘 스쿨을 통해서 가장 귀하게 얻은 것은 바로 크리스찬 예비 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임신 소식 후에 마냥 기쁘고 행복해하며 하루하루를 지내다,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큐티를 하며 성경에 나온 부모상과 아이상, 자아상 그리고 부부상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이를 키운다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며 한층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녀양육의 선배이신 이은미 전도사님과 집사님들의 경험담 또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달 동안 전도사님과 집사님들의 정성과 사랑을 듬뿍 받는 것 또한 즐거움 중 하나였습니다. 알찬 커리큘럼으로 매 시간 준비해주시고, 세심하게 보살펴 주신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저희 '해피맘 스쿨'동기생들은 다음 모임인 아기부 예배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저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신하게 될 많은 부부들도 함께 누릴 수 있다면 더욱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모임을 마련해 주신 교회에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Happy Mom School must go on!

박미나 / 해피맘 1기

사역보고 | 장애인사역부

장애인사역부 가을 야외예배

장애인사역부에서 가을을 맞아 야외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인부서 3팀 나무 약 30명은 10월 27일(토), 포천 허브아일랜드를, 청각장애인부서 예배다 약 40명은 11월 2일(토), 제이드가든을 다녀왔습니다. 각부서의 올해 암송 말씀이었던 시편 23편과 1편을 각각 묵상하며 떠난 가을 야외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누리며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동과 활동이 여의치 않은 장애인부와 듣지 못해 모든 것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는 예배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애인사역부는 일 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야외예배를 다녀오는데 봄에는 장애인부와 예배다가 함께 다녀옴으로 장애인사역부의 공동체성을 다지고, 가을에는 부서의 특성에 맞추어 두 부서가 각 예배를 드립니다. 장애인사역부의 특성상 재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야외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외예배를 통한 교회의 섬김은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또한 야외예배는 예비 지체들에게 전도의 문으로도 쓰임받고 있습니다. 심적, 육적으로 새로운 공동체에 속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특성상 야외예배는 누구나 환영받으며 열린 마음으로 올 수 있는 오픈 예배입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에 나와 예배를 처음 드리는 예비 지체들에게 야외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공동체의 평안을 맛보는 신앙생활 발걸음의 첫 시작이 됩니다. 2018년의 경우 야외예배를 통하

여 주님의교회 공동체에 발을 디딘 장애인 예비 지체들이 100% 등록하여 세례를 받고 현재까지 부서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청년부에서 봉사자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은 전동휠체어가 아닌 수동휠체어를 타고 야외활동을 할 경우 휠체어를 밀어주는 봉사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의 섬김을 통하여 지체장애인들이 이동 및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기회로 청년들도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기회는 우리 주님의교회 전 부서에 열려 있습니다. 예배와 교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사역부를 위하여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지혜 전도사 / 장애인사역부



사역간증 | 학원선교부

2019년 학원선교부 사역을 마치며

“공감의 ‘퀵’이다.”

“항상 우리가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잘 해결해 주신다.”

“간식 맛있다 ㅎㅎ”

“매 수업마다 하는 얘기를 공감을 잘 해주시고 잘 들어주신다.”

정신여고 기도어머니 수업을 하며 학생들이 적어준 이야기들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정신여고 기도어머니 72명, 정신여중 사랑어머니 25명의 봉사자들은 정신학교의 학생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아름다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20% 미만의 기독교인 즉 80% 이상이 비기독교인인 학생들과 기도하며 공감하며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매번 학생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할 때면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서로 공유하며 최상의 간식을 주어진 예산 내에서 준비하는 것이 반 팀장들의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수업 전 사전 모임에서 요즘 학생들에게 맞춰진 내용을 배우고 학생들을 만날 때면 두려울 때도 있고 감동적일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항상 수업 후 피드백 시간을 통해 팀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다음엔 더 나은 만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①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 줄 수 있는 어른,

② 어떠한 경우이든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

③ 그리고, 기도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 보호자이며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어른.

위와 같은 사역의 취지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구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위와 같은 완벽한 어른이셨고 나의 부모님, 선생님들은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언제나 도움의 통로였습니다. 그 도움의 일부분이라도 될 수 있다는 작은 바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정은 / 기도어머니

모십니다

장애인사역부 봉사자 모집

지체장애부서인 장애인부와 농아인 부서인 예배다로 구성된 장애인사역부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체장애인부서 장애인부는 2, 3부 예배 전 휠체어 차량의 주차봉사와 예배 후 장애인들의 식사를 위한 국수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예배 전후 단 30분이지만, 장애인부 지체들에게는 꼭 필요한 봉사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주님의교회 공동체에서 장애인부 지체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농아인 부서 예배다부는 매 주일 11시, 농아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수화를 배우실 주님의교회 지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수화를 하지 못하시더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교회의 한 몸인 장애인사역부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부

주차 봉사(2·3부 예배 전)

2부 : 9시 ~ 9시반

3부 : 11시 ~ 11시반

국수 봉사(2·3부 예배 후)

2부 10시 40분 ~ 11시 20분,

3부 12시 40분 ~ 1시 20분

예배다

예배 : 주일 오전 11시 5층 제1집회실

수화를 하지 못하시더라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정지혜 전도사 010-2619-4416

한재희 안수집사 010-3799-2640

인터뷰 | 아기정원 이은미 전도사

커피 가루로 만든 아이들의 천국

지난 몇 달 동안, 교역자실이 있는 4층 복도에는 커피 가루가 담긴 종이 상자들이 줄지어 햇볕을 쬌고 있었다. 사정을 모르는 어떤 이들은 커피 향이 좋다면서 지나갔고, 어떤 이들은 좁은 복도를 막고 있는 상자들이 불편하다고 툭툭거리기도 했으며, 어떤 이들은 방형제로 쓰겠다고 커피 가루를 얻어 가기도 했다. 11월 21일이 지나자 그 커피 가루들이 사라졌다! 다음 날, 여기저기 사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기정원에서 아이들이 커피 가루와 함께 놀고 있는 장면들이었다. 사연을 알기 위해 지난 주일 오후, 그동안 커피 가루의 선량한 관리자를 자임했던 이은미 전도사를 만났다.

아기정원에서 촉감놀이에 쓰였다고 들었습니다. 모래가 아닌 커피 가루인데요.

보통은 밀가루나 모래로 하지요. 그런데 밀가루로 하면 어린 아기들 아토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청소가 힘듭니다. 촉감놀이 전용 모래가 있긴 한데 고가이고, 놀고 나서 처리가 어렵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우연히 카페에서 커피를 추출한 찌꺼기를 모아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에스프레소 내린 고운 커피 가루를 얻



어와서 말려 보았습니다. 촉감이 아주 좋더라고요. 당시 사역하던 아기 학교에서 이렇게 말린 커피 가루로 촉감놀이를 했더니 학부모님들이 좋다고 난리가 났어요. 총회 교단에까지 알려져서 영유아교육 담당하는 사역자한테 교육을 통해 많이 전파도 했습니다.

그 많은 커피 가루를 어디서?

인근 상가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소년부 이승훈 집사, 이미경 집사 두 분이 동네 카페에서 많이 모아 주셨어요. 양옆 목회자실에서 나오는 드립커피 가루도 살뜰히 모았지요.

복도에서 보니 양이 꽤 되던데요. 말리기 힘들었겠어요.

40kg짜리 쌀포대로 다섯 포대나 됩니다(웃음). 말릴 때 곰팡이 나기가 쉬워서, 최대한 햇볕 좋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뭉친 덩어리를 잘 부셔서 풀어주고 매일 뒤집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처음에 말린 커피 가루에서는 곰팡이 흔적을 발견해서 전량 폐기했습니다. 이후 9월부터 11월까지 매일 아침저녁으로 발고랑 내듯 헤쳐주며 말렸는데, 덕분에 교회에서 텃밭 가꾸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웃음)

촉감놀이는 어떤 어린이들이 하나요?

12개월~7세까지 유아기의 어린이들이 주로 하고, 저학년 어린이들도 합니다. 촉감놀이는 오감을 통해서 학습하는 아기정원의 여러 과정 중 하나예요. 유아들은 온몸을 사용하며 놀이를 통해 학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달 주기에 맞춰 주님의교회 아기정원에서는 12개월~40개월까지 어린이들이 교육 내용을 오감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각 교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기정원에서 촉감놀이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는데요?

커피 가루를 흠쳐서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큰 종이를 펼쳐놓고, 처음에 제가 커피 가루를 흠뿌리면서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땅에 뿌려진 커피 가루를 높이 쌓으면 산이 되죠. 그리고 그 땅과 산속에 뿌린 채소들을 넣어 아이들이 흠(커피 가루)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을 발견하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하나님 창조의 손길을 자기 몸으로 직접 느낍니다. 또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부모님들은 미리 도화지에 풀로 아기 이름과 사랑한다는 축복문을 써넣습니

다. 그 종이 위에서 아기들은 커피 가루를 맘껏 뿌리고 만지며 창조-놀이를 하는 거죠. 놀이가 다 끝난 후 종이에서 커피 가루를 털어내고 나면, 풀칠한 길을 따라 부모가 써둔 글씨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축복문을 읽어주고 하나님 창조의 핵심은 바로 우리 아기들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기와 엄마가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기정원에서는 항상 부모님들께는 이러한 커피 가루를 놀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시청각 교구임을 강조해요. 부모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자녀에게 가장 효과적인 시청각 교재라는 것도요.

아, 부모님과 함께 하는 과정이군요.

그럼요. 아기정원은 부모와 아기와 의 공동 프로그램입니다. 부모님과 아기들 사이에서 애착이 신뢰로 바뀌도록 돕는 과정이죠. 그래서 아기들과 함께 부모를 교육하는 것이 아기정원의 중요한 교육과정입니다. 부모님들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되면, 저절로 아기들에게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지요. 말로 백 번 가르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한 번의 시범이 더 중요합니다.

사진도 찍으세요? 교재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리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원래 전공은?

학부에서 유아교육과 기독교교육을 전공했어요. 유아교육을 하다 보니 그림을 그려야 할 일이 많아 직접 그리기 시작했지요.(직접 그린 교재를 보고 모두 감탄!) 지금은 너무 바빠서 보조 작가를 사비로 고용해서 그리기도 합니다. 구도와 배경을 스케치해주고 같은 스타일로 그리게 하는 거죠. 사역하다 보면 몸으로 때워야 할 일들이 많은데, 제가 덕후처럼 빠져드는 스타일이어서 카메라에도 빠졌죠. 초기부터 포토샵과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교재를 만들기도 했어요. 손으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젊어서 레고에 빠져서 동호회 활동도 했고(아직도 회원입니다), 차 운전도 좋아합니다. 속도를 즐기죠(웃음).



신학대와 대학원도 나오셨는데 왜 목사 안수를 안 받으셨어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웃음) 기독교교육학으로 대학원을 졸업한 후 필드에서 사역하고 통합 측에서 교육전문가로 일해왔기 때문에 목사 직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는 않았던 거 같습니다. 저는 본래 통합측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장신대(통합 측 신학대학)에는 유아교육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유아교육과 기독교교육을 모두 공부하기 위해 총신대(합동 측 신학대학)에 진학하여 학부와 교육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물론 이후 모든 사역은 다 통합 측 교회와 총회에서 했지요. 그래서 졸업 후 주로 장신대 교수님들과 친하게 지내며 함께 여러 프로젝트도 하고 교재 집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해왔던 일이 유아교육 커리큘럼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총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교재를 집필하고 해외 교회교육 분야 커리큘럼을 짜기도 했어요. 항상 바쁘게 여기저기 다니며 일해왔는데, 전도사로 일하는 것이 불편한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직분이 중요하지는 않으니깐요. 그런데 사실 주님의교회 유아숲 총괄 교역자로 부임하고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서 조금 장황하게 설명 드린 거 같네요(웃음).

> 7면으로



목회칼럼

떠나는 길이 기쁘고 설렐 수 있는 이유

“익숙함으로부터 떠나라!”, “새로움을 찾으라!”. 매스컴에서 자주 접하는 광고 카피들입니다. 흔히 여행상품이나 신제품이 나왔을 때 나옴직한 광고 문구이죠. 성경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12:1). 이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그의 실수, 때로는 반복되는 불신앙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끝까지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주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일전에 청년 사역자일 때 태국으로 비전트립을 갔을 때 일입니다. 갑자기 운전을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운전을 하려고 보니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하였는지 다시 초보운전자가 된 기분이었는데, 그나마 익숙해질 즈음 다시 귀국길에 올라야 했었습니다. 귀국하니 그사이 원래 왼쪽 운전대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을 보며 헛웃음 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고 새로운 것을 만날 때 느끼는 설레임과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레임과 짜릿함

이 가능한 이유는 다시 돌아올 곳, 다시 있어야 할 나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날마다 떠나야 하고 날마다 새로운 것만 눈앞에 펼쳐진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신입사원, 초보운전자의 마음을 떨칠 수 없다면 정말 늘 설레고 기쁠 수 있을까요?

매일 기상천외한 새로운 앱이 스마트폰에 깔리지만 정작 제일 유용한

것은 설레지만 위험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줄 믿고 익숙한 땅을 떠납니다. 떠날 때 받은 약속은 나를 금방이라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데려갈 것 같지만,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땅으로 가는 과정, 새로운 땅에서의 과정 모두 항상 위험했고 도처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6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익숙함

**새로운 출발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나의 익숙함과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능은 전화와 메시지도고, 온라인으로 수만 가지 콘텐츠가 생겨나지만 종이책은 사라지지 않으며, 새로운 음악이 늘 음악시장에서 순위 다름을 하지만 내 입에는 늘 익숙한 그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맛집은 쏟아져 나오지만 그리운 건 집밥이죠.

우리는 익숙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서 늘 줄다리기를 합니다. 익숙한 것은 지루하지만 안전하고, 새로운

에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 앞에 나를 지켜주는 것은 매일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울던 우리 공동체의 사랑일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떠나는 길이 기쁘고 설렐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나의 돌아올 집이 되고 그 사랑이 나를 먹여주는 양식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이스캠프,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출발이 두려움이 아닌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나의 익숙함과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시4:8). 평안을 빕니다. 샬롬!

김대환 목사

6면에서 계속 >

아침, 중요한 질문을 빠뜨렸습니다. 커피를 무척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9월까지만 해도 커피를 한 방울도 못 마셨습니다. 커피 가루를 모으다 보니 10월 무렵 커피 향에 익숙해져서, 지금은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제대로 내려서 마십니다. 사실 내친 김에 제대로 커피 공부해보려고, 얼마 전 자동 커피 분쇄기도 3개월 할부로 샀습니다.(일동 웃음)

커피 재능도 또 활용하셔야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사무실에서 카페를 하나 열었습니다. ‘카페 킹콩’이라고... 커피 스승님들이 지어주셨어요. ‘콩의 나라’라는 뜻이래요.(웃음) 어릴 적 제 별명이, 머쓱하게 키가 크다고 ‘콩나무’였거든요. 그렇다고 콩나무가 왕으로 있는 카페는 아니고

요, 왕이신 예수님이 콩나무를 통해 일하시는 카페라고나 할까요...(웃음)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언제든 와서 향기로운 커피 한잔 하며 휴식하고 생각도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교회 공동체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올해와 내년 교회 주제가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당연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모든 가정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큰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교사가 되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하듯이, 우리 교회에서도 부모세대인 기성세대가 믿음과 삶의 모범을 통해 자녀세대인 다음

세대를 돌보며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2년째 이어가는 우리 교회 표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대 잇기를 통해 교회 전체의 역동성을 제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의교회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추구하듯이, 교회교육은 단지 교회의 미성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교육은 다음세대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 부모세대를 변화시키고, 또 그렇게 변화된 부모세대가 자기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웃과 사회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교회 교육부가 바라보는 “가정이 신앙의 주체”라는 표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기정원과 유아숲 교육과정을 보기 위해 다른 곳에서 자주 탐방팀이 옵니

다. 저희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송파 지역 작은 교회들의 유아교육의 질도 주님의교회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려 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와 지역사회를 향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커피 한 잔에서 시작한 인터뷰가 꽤 길어졌다. 나눌 얘기가 많았지만 주일 오후 바쁜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마쳐야 했다. 커피에서 레고까지, 자동차에서 손그림까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특별히 많기 때문에 휴일도 없이 하나님 사역에 몰두하고 있는 이 전도사를 통해 더욱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기를 응원할 수밖에 없었다.

함글함글

아기나들이



정윤서 아기

2019년 7월 2일생

1.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늘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며 겸손하고 지혜로운 건강한 아이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빠 정상훈 성도/엄마 조교은 성도, 2019년 11월 17일 3부 예배

교회 단신

입교세례식

2019년 하반기 입교세례식

지난 10월 27일 4부 예배에서 2019년 하반기 입교세례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입교자 12명과 세례자 15명이 하나님의 품에서 새로 태어났다.

입교자 : 김 철, 김태현, 박누리, 성윤실, 장슬기, 정원홍, 김지우, 안정현, 우지민, 이예은, 지수현, 원찬희

세례자 : 강미정, 김수빈, 김영숙, 김윤영, 김인화, 오수민, 유경태, 이나은, 이란희, 이민재, 이시은, 이정현, 정지연, 한은희, 김민웅

함즐함울

새가족환영식

11월 새가족 환영식



지난 11월 24일 4층 오후 3시 30분 대회의실에서는 새가족 환영식이 있었다. 11월 새가족 교육 수료자 8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환영식은 담당 박주영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으며, 김화수 담임목사의 환영사와 기도, 수료증 전달과 교회 선물 증정, 교구 목사 및 장로 권사들과의 대화로 이어졌다. 여느 달보다 수료자는 적었지만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된 기쁨이 무엇보다 소중한 환영식이었다.

함즐함울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장애인 사역부

식당나무 / 에바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식당나무 지체장애인

주일 예배 전 후 30분!
식당나무 가족에게는 꼭 필요한 봉사입니다!

주차봉사 | 2·3부 예배 전

2부: 09:00~09:30

3부: 11:00~11:30

국수봉사 | 2·3부 예배 후

2부: 10:40~11:20

3부: 12:40~13:20

에바다 청각장애인

농아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수화를 배우실
주님의교회 지체를 기다립니다!

알립니다

1. 12월 자녀축복 새벽기도회

주님의교회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목 :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 **본문** : 사도행전 10:1~8

일시 : 12.14(토) 오전 5:20 대예배실

2. 장애인사역부 봉사자 모집

식당나무(지체장애)와 에바다(농아인)로 구성된 장애인사역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1) 식당나무 봉사자

주차 봉사(휠체어 차량 안내 및 도움): 2·3부 예배 전 30분간

(2부 9:00~9:30, 3부 11:00~11:30)

국수 봉사(장애인 식사 섬김): 2·3부 예배 후 40분간

(2부 10:40~11:20, 3부 12:40~1:20)

2) 에바다 봉사자

농아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수화를 배우실 분.

(현재 수화를 하지 못하시더라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및 장소: 매 주일 오전 11시, 5층 1집회실

문의: 정지혜 전도사 010.2619.4416

한재희 안수집사 010.3799.2640

알립니다

함즐함울, 원고를 기다립니다

주님의교회 신문 <함즐함울>은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값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 간증, 사역 후기, 교회 안의 미담이나 칼럼, 기행문, 단상 등 주님의교회 공동체와 같이 나누면 좋은 어떤 글이라도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 hamletter@daum.net 으로 보내주시면, 편집지침에 따라 검토하고 지면 사정에 맞추어 게재합니다.

함즐함울